

# 정해영 “‘타이거즈 마무리’ 자부심으로 즐기겠다”



## KIA 타이거즈 아마미 캠프를 가다

일본=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5년 연속 20세이브 ‘팀 최다’에도  
지난 시즌 부진에 마음고생 심해  
“체력·멘털 강화로 새 시즌 도전”

KIA 타이거즈의 투수 정해영이 ‘마무리’의 자부심으로 뜨거운 2026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정해영은 지난 시즌 60경기에 나와 27개의 세이브를 수확하면서 5년 연속 20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다. 구대성과 손승락에 이은 KBO리그 역사상 세 번째 기록이자 최연소 기록이다.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프로 첫해인 2020년부터 KIA 불펜에서 역할을 한 정해영은 이후 마무리를 맡아 통산 148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선동열(132세이브)의 기록을 뛰어넘은 타이거즈 역대 최다 세이브 기록이다.

타이거즈 마무리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는 정해영이지만 지난 시즌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정해영은 3.79로 입단 후 가장 높은 평균자책점을 찍었고, 7개의 불륜세이브와 함께 7패도 기록했다. 팀이 부상으로 신음하면서 타이트한 승부가 이어졌고, 정해영의 부담은 더 커졌다.

“힘들었다. 야구장 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힘들었다”며 지난 시즌을 돌아본 정해영은 “전반기 때는 재미있었다. 개인적으로 전반기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불륜하면 팀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경기를 날릴 때 누구보다 힘들었다. 안 중요한 경기는 없다. 모든 경기가 중요하니까 힘들었다. 응원해 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고 마음 먹고 있다. 그냥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운드 ‘최후의 보루’로 부담감이 크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있다. ‘타이거즈 마무리’라는 자부심으로 정해영은 힘든 시간을 버티고 또 다른 영광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정해영은 “자부심 있다.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것이 없었으면 더 힘들어했을 것 같다. 주위 형들, 동생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줘서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올해는 다른 말보다 잘하겠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잘하기 위해 정해영이 신경 쓰는 것은 ‘체력’이다. 마운드에서 버틸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게 정해영의 이야기다.

정해영은 “체력이 중요하다. 지난해에 체력이 더 받쳐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력 키우는 게 가장 힘든 것이지만 몸이 버티는 체력도 키워야 하고, 멘털도 더 강화해야 한다. 그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 결국 야구를 잘해야 멘탈도 좋다”며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 내내 잘하면 좋겠지만 60경기 다 나가서 무실점하는 투수는 없다. 기록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좋은 단어로 ‘좋은 시기를 오래 가져가자’는 생각이다. 좋은 단어로 좋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내 위치가 안 좋은 시기에 티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난도 받고 응원도 받고 하는 것이다. 하면 할수록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내가 이겨내야 한다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정해영이 일본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볼펜 피칭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다. 또 그런 것을 이겨내라고 있는 게 필승조이고 마무리다. 그런 상황을 즐기면서 나가야 한다”고 덧붙혔다.

새 시즌 명예회복을 노리는 KIA와 정해영 입장에서는 ‘새 얼굴’들의 합류가 반갑고 든든하다.

KIA는 올 시즌 좌완 김범수, 우완 이태양과 홍건희를 더해 마운드 전력을 짜고 있다. 마무리 경험 이 있고, 전전후 활약이 가능한 베테랑들이 가세하면서 더 촘촘한 마운드가 구성됐다.

정해영은 “형들이 오면서 우리 전력이 플러스가 됐다. 그것에 걸맞게 다 같이 뭉쳐서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들 준비도 잘 해왔고 재미있게 잘하고 있다”며 “완전체였을 때는 누구보다 무서운 팀이었다. 작년에 부상으로 팀이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다들 안 다치려고 하고,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이거즈 V12에 마침표를 찍은 기억도 정해영에게는 동기 부여가 된다. 정해영은 2024년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우승을 확정하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은 뒤 김태균과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서 포효했다.

정해영은 “한 번 (우승)해보니까 더하고 싶다. 안 해봤을 때는 안 해본 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해보니까 그 느낌을 알아서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 평생 한 번 할까 말까한 순간을 경험했는데 앞으로 더 하고 싶다”며 “지난 시즌 팀 최종 순위는 8등이었지만 내가 입단한 이후 팀은 항상 5강 경쟁을 했었다. 개개인 능력은 뒤처지지 않는다. 한 단계 넘어서면 꾸준히 계속적인 강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잘 하겠다”고 타이거즈의 도약을 위한 역할을 다 집했다.

/wool@kwangju.co.kr



## 18세 ‘올림픽 초짜’ 날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유승은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은, 팔·다리 골절 부상 딛고 빅에어銅…한국 ‘멀티 메달’



잇따른 부상에도 스노보드를 놓지 않은 2008년생 유승은(성복고)이 한국 스키·스노보드 동계 올림픽 출전 역사에서 새로운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유승은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171점을 얻어 무라세 코코모(일본·179점), 조이 사도스키 시넛(뉴질랜드·172.25점)에 이어 3위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유승은은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두 번째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고,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시상대에 섰다.

또한 스노보드를 타고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종목이 아닌 연기를 채점하는 프리스타일 계열 종목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수확했다.

이전까지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이상호(백선원가드)와 이번 대회의 김상겸(하이원)이 스노보드 알파인 계열인 평행대회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땀다.

‘감심장’만 살아남는 프리스타일 중에서도 빅에어는 난도가 높고 부상 위험이 큰 종목으로 꼽힌다.

하나의 대형 점프대에서 도약, 점프와 회전, 착지, 비거리 등을 겨루는 빅에어에서 선수들은 ‘아파트 15층’ 정도의 높이에서 빠르게 미끄러져 내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유승은이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려온 뒤 날아올라 각종 요소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만 18번째 생일을 맞은 유승은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아버지를 따라 스노보드에 입문해 선수의 길을 걸었다.

2023년 9월 국제스키연맹(FIS) 세계 주니어 스노보드선수권대회 여자 빅에어에서 준우승하는 등 기대주로 성장하던 그는 어린 나이에 유독 부상으로 큰 불운을 겪었다.

FIS 월드컵에 나서기 시작한 2024년엔 오른쪽 발목이 골절돼 1년여를 재활에 매달려야 했고, 복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손목이 골절되는 시련을 겪었다.

선수 생활을 포기할 뻔한 위기였지만, 유승은은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빅에어 월드컵에서 7위에 오르더니 그 직후 미국에서 열린 올림픽 전 마지막 월드컵에선 준우승하며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빅에어 종목에서 월드컵 메달을 획득했다.

유승은의 올림픽 출전 또한 그 자체로 역사였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처음 정식 종목이 된 빅에어에서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경기를 치렀다.

평창 대회 때 정지혜가 대표로 발탁됐으나 부상으로 경기에는 뛰지 못했고, 2022년 베이징 대회 때도 한국 선수가 없었다.

그리고 유승은은 예선을 당당히 4위로 통과하며 한국 빅에어 사상 첫 결선 진출도 일궈냈다.

우여곡절 끝에 온 첫 올림픽에서 ‘순위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경기를 즐기고 오겠다. 부상 없이 준비한 모든 기술을 성공적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던 유승은은 이날 결선에서 그 약속을 지켰다.

올림픽을 바라보며 갈고 닦았던 ‘백사이드 1440’(몸 뒤쪽으로 네 바퀴를 회전하는 기술)을 1차 시기에서 깔끔하게 성공했고, 2차 시기에선 방향을 바꿔 마찬가지로 네 바퀴를 돌며 여자 선수가 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뽐냈다.

이날 금메달을 딴 무라세와 은메달리스트 사도스키 시넛 모두 올림픽 입상 경력자들이다. 지난 2회 연속 금메달을 땀던 안나 가서(오스트리아)도 결선에 나갔다.

이런 경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올림픽 초짜’ 유승은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시상대 한 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연합뉴스

한국 야구, 프리미어12 성적이 LA 올림픽 직행 ‘열쇠’

본선 출전 방식 확정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야구 종목 본선 출전 방식이 확정됐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은 2028년 LA 올림픽 야구와 소프트볼 종목 본선 진출팀들을 정하는 방식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LA 올림픽 야구에서는 자동 출전하는 개최국 미국을 비롯해 6개 나라가 경쟁한다.

WBSC는 먼저 올해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미국을 제외한 미주 대륙 상위 2개 나라에 본선 진출권을 배정했다.

이어 2027년 11월에 열리는 WBSC 주관 프리미어12 상위팀에 2장을 준다. 이때는 아시아대륙 상위 1개 나라, 유럽 또는 오세아니아 대륙 국가 상위 1개 나라가 LA행 티켓을 손에 쥘다. 마지막으로 6

개 나라가 출전하는 최종 예선 1위 팀이 LA 올림픽 본선 막차를 탄다.

본선행을 확정 짓지 못한 나라 중 아시아선수권대회 상위 2개 팀, 유럽선수권대회 상위 2개 팀, 아프리카선수권대회 1개 팀, 오세아니아선수권대회 1개 팀이다.

결국 한국 야구가 LA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2027년 프리미어12에서 같은 아시아 나라인 일본, 대만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첫 번째 방법이다.

실패할 경우 아시아선수권을 거쳐 최종예선에서 타진하는 게 차선책이다.

2021년 도쿄 올림픽 때 우리나라는 2019년에 열린 프리미어12에서 2위를 차지해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2028년 LA 올림픽에는 일본 역시 예선을 거쳐야 하므로 본선행 관문이 2021년에 비해 더 좁아진 셈이다.

/연합뉴스

김상겸 2억·유승은 1억…스노보드 ‘억대 포상금’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스노보드의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협회로부터 역대 포상금을 받는다.

10일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유승은은 한국시간 이날 새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올림픽 우리나라 전체 1·2호 메달이며,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올

림픽 메달이다. 특히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단일 올림픽에선 처음으로 ‘멀티 메달’을 수확했다.

협회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에 3억원, 은메달에 2억원, 동메달에는 1억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당시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고 이번 올림픽에선 포상금액을 유지했다.

2014년부터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각종 국제대회 포상금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청소년올림픽과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메달 입상 뿐만 아니라 ‘6위’까지도 포상금을 준

다.

올림픽에선 4위에게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에게는 10000만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총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

2016년부터 포상금으로만 지급된 액수가 12억원에 육박한다.

스키·스노보드협회는 이번 올림픽 이후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계획이다.

한편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대회 메달 물꼬를 튼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소정의 선물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